

# 외국인 학생들, 남해 생활 관광체험에 반했다

등록 2023.08.01 08:55:22



[진주=뉴시스]외국인 학생들 남해 생활관광체험에 흠뻑. \*재판매 및 DB 금지

[남해=뉴시스] 정경규 기자 = 중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, 태국, 베트남 등 외국인 학생 30여명이 지역 생활문화와 관광체험을 위해 경남 남해군을 찾았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은 아시아-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(TPO)와 공동 주최한 '2023 K-CLIP in 남해'가 지난달 28일~29일 1박2일 동안 남해군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.

K-CLIP(Korean Culture and Language Immersion Program)은 TPO에서 2009년부터 아시아-태평양지역 관광분

야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,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했다.

아시아-태평양지역 회원도시로 초청된 참가 외국인 학생들은 미래 관광의 주역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개최지 생활문화를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.

이번 남해를 찾은 외국인인 베트남(하노이, 호치민, 달랏), 태국(방콕), 말레이시아(쿠알라룸푸르, 카장, 수방자야, 관탄, 푸츱), 중국(정저우, 리장), 도미니카공화국 등 5개국 12개 도시에서 초청된 대학생 28명이다.

이들 외국인 학생들은 남해각, 회룡농촌체험마을, 남해 보물섬전망대, 남해 독일마을에서 다양한 남해 생활관광문화를 체험했다.



[남해=뉴시스] 외국인 학생들 남해 생활관광체험에 빠지다. \*재판매 및 DB 금지

남해각과 남해 독일마을에서는 해설과 함께 남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, 회룡농촌 체험마을에서는 편백숲에서의 숲 놀이, 남해 보물섬전망대에서 클리프워크 체험을 하며 남해에서 다양한 관광문화자원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.

참가자들은 “남해의 편안한 자연환경 덕분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다. 스틸 있는 클리프워크 체험과 함께 남해의 특산물인 멸치쌈밥도 먹어볼 수 있어 즐거웠다”며 “가족과 함께 남해에 꼭 다시 한 번 방문해 바다와 갯벌체험 등을 하고 싶다”고 말했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“TPO와 연계해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남해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외국

인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"며 "향후 외국인 관광객이 남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"고 밝혔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jkgyu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